

# 현실과 환영의 상징적 향연

고영훈 미술작품 전시회 <솔거를 위하여> 이모저모



작가 고영훈씨(46)는 제주 태생이다. 삶 주변의 사물을 극사실주의 화풍으로 표현한 독특한 작품 세계를 추구, 일찍부터 이목을 끌었다. 76년 첫 개인전 이후 국내외에서 30여차례 전시회를 가졌다.

돌(石)은 때묻지 않은 자연을 상징한다. 화가 고영훈(46)씨는 돌을 주제로 하여 사실주의적 그림을 그렸다. 벌써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삼십여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돌은 변함이 없다. 다만 돌 위에서 영위하는 세상 것들이 흔들릴 뿐이다. 그가 가나아트센터에서 11월 22일까지 개인전을 열면서 '솔거(率居)를 위하여'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도 흔들리지 않은 한국 회화정신을 계승하려는 의도다. 솔거의 그림이 사실적인 것처럼 그의 그림도 사실적이다.

돌이 많은 제주에서 태어난 그는 줄곧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고향 제주에서 '돌'을 주제로 개인전(76년)을 열 때, 많은 사람들이 수석전인 줄 알고 찾아왔을 정도로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활동하여 '외화벌이 화가'로 명명되기도 했으며, 외국풍과는 다른 사실주의적 그림을 계속 그려왔다. 이번에 전시된 그림도 솔거가 그린 황룡사의 노승도를 향해 날아든 까치처럼 감상하는 이들을 착각속에 빠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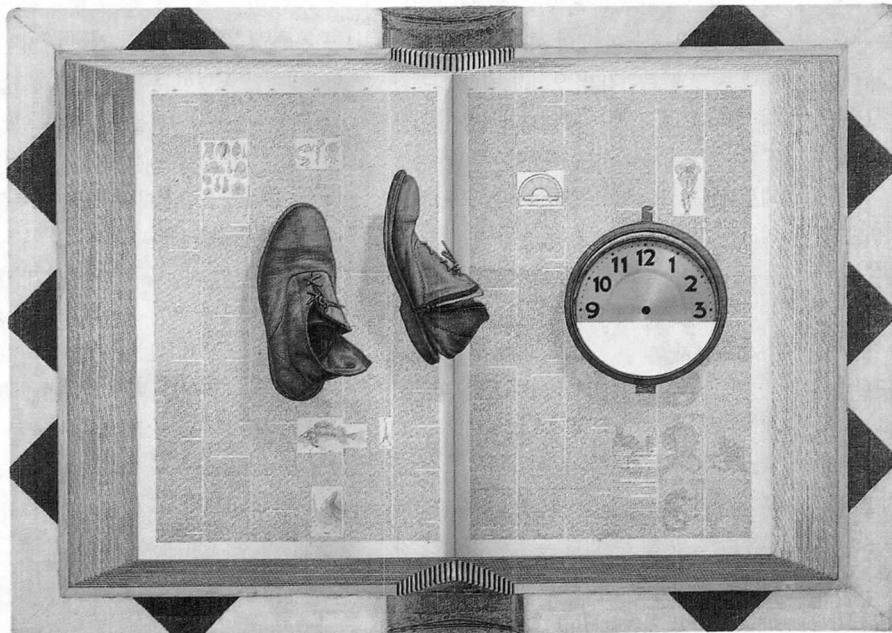
그런데 그림을 가만히 뜯어보면 돌의 반석이 되는 그 무엇이 있다. 바로 책이다. 책은 축적된 지식의 상징물. 돌과 책은 역사와 사회의 공간과 시간을 확장하는 기초 수단이다. 이번

전시회는 책뿐만 아니라 새의 깃털·칼·삼·화살·운동화·시계·방독면, 나아가 자동차 라디에이터·TV 브라운관, 산업 폐기물 등이 오브제로 등장한다. 이들 오브제는 우리의 일상을 상징한다. 또한 일상에 쓰다 낡고 문들어지면 역사(책)에서 잊혀지는 존재들이다. 우리들 인생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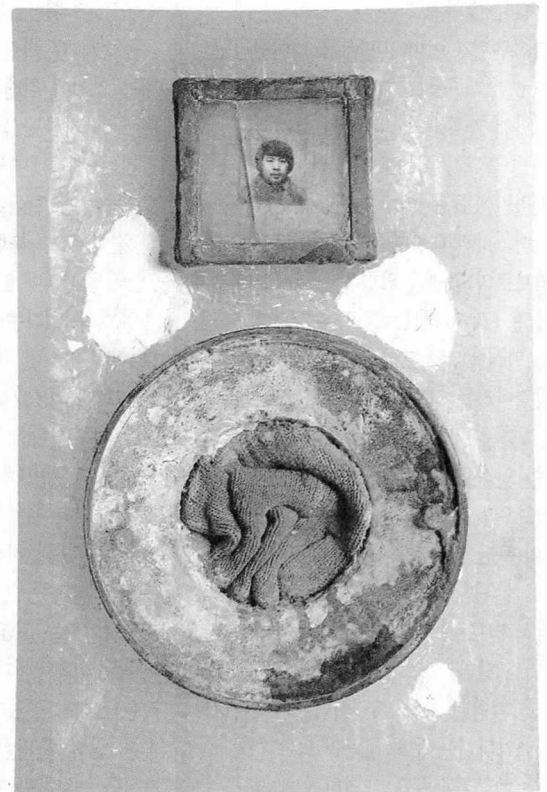
그는 오브제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갖가지 구조적 변형을 꾀한다. 피라핀을 응고시켜 콜라주하거나 상자에 담아 규격화하기도 한다. 벽면에 걸어두기도 하고, 실물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 변형된 구조는 역사적 공간으로, 오브제는 그 공간 속에서 머물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전시장은 일상의 존재를 위한 향연의 장인 셈이다. 낡은 것에 대한 작가의 경외감이 느껴진다.

사실적인 그림과 구조변형을 통해 작가는 그림을 대하는 이들이 어느 것이 환영인지 변별력을 잃게 만든다. 연출의 의도는 갈등을 자아내어 현실과 환영의 관계는 물론, 사회·역사의 흔적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솔거가 사실적인 그림으로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했듯이, 환영을 버림으로써 회화의 즐거움을 전하려 한다. 최대한 자연물을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 오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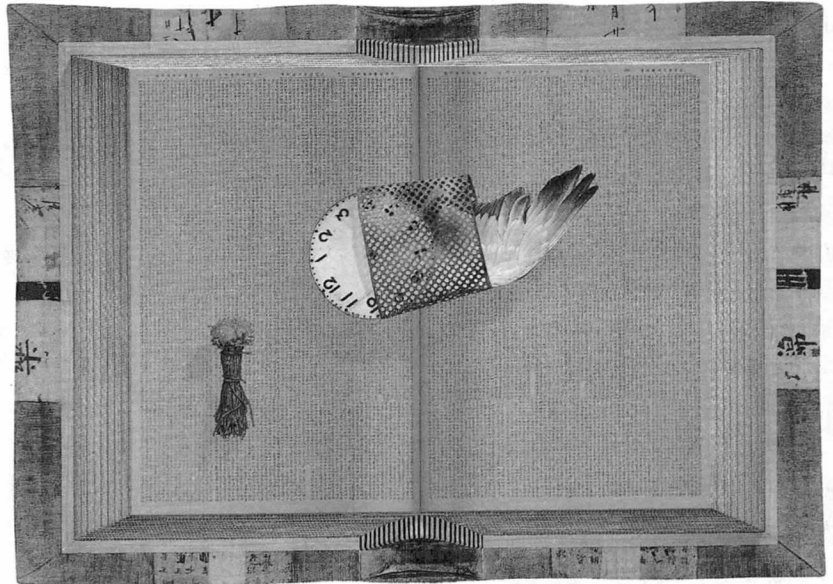
· <어디로>(1998), 가버린 사람들의 역사, 책은 그들의 흔적을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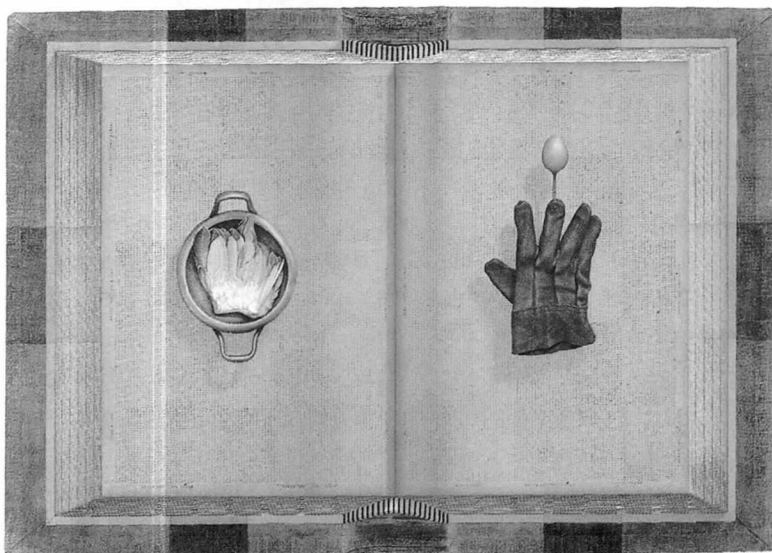
· <발굴 - 증명사진>(1998), 상처받은 존재의 감춰진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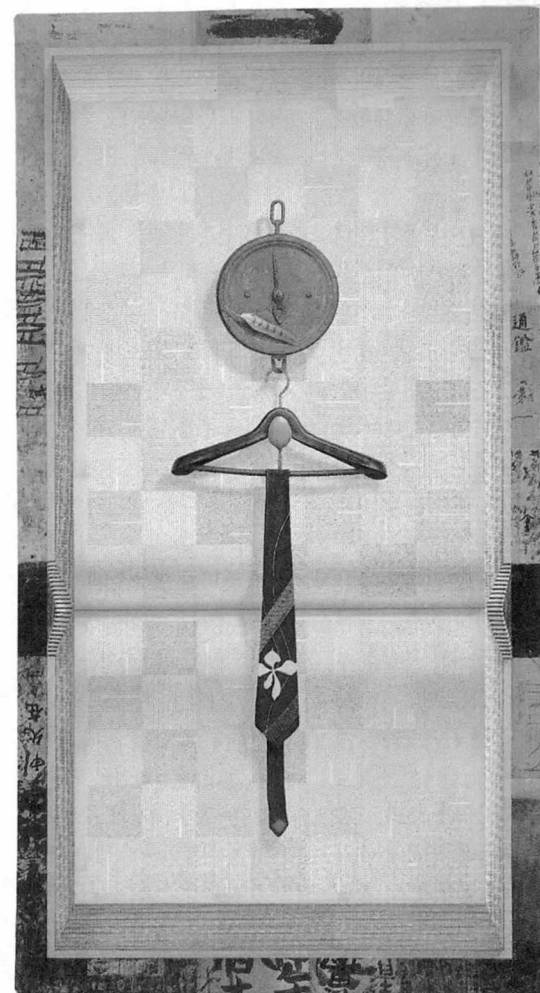
· 자연으로 돌아가는 잊혀진 존재들을 상징하는 작품.  
작가는 작품들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원조로서 술거의 모습을 복원하려 했다.



· <덧>(1998), 박제된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날개짓,  
책은 그 반석이 된다.



· <식사>(1998), 우리는 책을 통해 지식의 양식을 얻고 일상의 것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



· <샬러리맨>(1998), 일상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욕망,  
풀어놓은 넥타이는 염원을 상징한다.